

2015년 작은연구 좋은서울

# 은퇴자 도시농업으로 새로운 꽃 피우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 정책건의 보고서

2015년 10월  
작성자 : 박기홍

## 은퇴자 도시농업으로 새로운 꽃 피우다.

### I 개 론

베이비붐세대(1955~1963)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712만여명의 은퇴자들이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하여 서울에서 젊음을 보낸 은퇴자들은 자기가 살도 있던 추억의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여기에 사회적인 유행에 맞물려 귀농 귀촌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구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귀촌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억 소리 나는 귀농성공담이 매일 오르내리니 농사 까짓것 못하겠냐는 생각에 멋진 전원생활을 꿈꾸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체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와 연습 없이, 가족들의 동의 없이, 무작정 내려간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씨만 뿌리면 수확 할 줄 알았던 작물이 수많은 피땀을 흘려야 수확하고, 그나마도 경제적인 가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전폭적인 동의 없이 의욕만으로 저지른 일에, 가족들의 불만과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서울과 달리 개인 프라이버시를 배려는 찾기 어려운 그곳에서, 현 지인들과의 불화도 참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서울로 오고 싶지만..

이미 재산의 상당수가 그곳에 묶여 있고, 서울의 집값은 월세 보증금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있습니다.

인생의 2막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고 힘들어 의욕도 사라집니다. 인생 100세라는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귀농귀촌의 뒷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며 도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역귀성 하고 있는 현실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와 삶의 의욕을 되찾고,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주변의 관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3단계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 파악과 정책찾기, 그리고 해결방안을 짧은 시간에 연구해 보았습니다.

1단계 : 귀농자와 역귀성자에게 직접 현실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 : 각 기관의 담당자를 통하여 귀농귀촌의 정책방향과, 은퇴자들을 위한 정책 분석, 도시농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봅니다.

3단계 : 위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농업이 역귀성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봅니다.

도시농업은 내가 먹을 작물을 내 주변에서 키우는 작은 농업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이 젊은 날 쌓은 재능을 이용

하여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풍성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귀농, 귀촌 정책의 새로운 변화도 모색하고, 도시농업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기회도 삼고,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을 유도하여, 은퇴 후 실패하지 않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II 연구방법

1. 귀농귀촌 성공자,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성한 자, 귀농귀촌 예정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귀농귀촌의 현실 파악
2. 귀농귀촌 종합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로 부터 현재의 정책방향 파악
3. 귀농귀촌 현장을 찾아가 지역 귀촌자 인터뷰
4. 도시농업 전문가 및 활동 사항 인터뷰, 자료 수집
5.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정책제안

## III 정책제안

### 1. 청년과 은퇴자의 싱크로나이즈

가. 청년의 열정과 은퇴자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기관 조성

-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 -

- 현재 저성장 경제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과 은퇴자 제2인생을 위한 일자리가 모두 부족한 상태임.
- 청년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으나, 노하우와 사회적인 경험, 자금력이 부족하고, 은퇴자는 사회적 인맥과 노하우,

자금력이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동력이 부족함.

-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사회적 기관이 조성되어 청년이 앞서나가고, 은퇴자가 뒤를 봐주고 실패를 줄이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나. 세대간의 차이와 사회적인, 기술적인 격차를 조정하는 중계기관 필요

- 하지만 문제점은 청년과 은퇴자의 세대 간 소통의 방법의 문제가 있음.
- 청년은 열정이 앞서,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성세대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은퇴자는 자신의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하려 합니다.
- 이런 부분은 소통방법의 교육을 통해 인식시키고, 같이 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계하고 이끄는 기관이 필요함.

## 2. 일관성 있는 귀농, 귀촌 정책 방향

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러 단기적이거나 지역적인 편향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

-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에 의해 선심성 공약에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각종 정책들이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음.
- 현장 공무원조차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 각종 정책을 통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나. 귀농, 귀촌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패 방지 및 역귀성 방지 대책 마련

- 현재 각종 조사 자료는 귀농, 귀촌을 시작하는 자료만 수집되고 있음.
-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지 적응을 못하고 역귀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사와 역귀성 방지 대책이 필요함.

### 3. 귀농 귀촌 예비자 전문적인 사전 교육

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귀농, 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귀농, 귀촌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대 전환임.
- 그런데 대부분의 귀농귀촌 교육은 몇 가지 단순한 농업기술과 정책 선전만 해서 현지로 내려 보내다 보니 현지에서의 각종 문제와 현지인과의 소통 불화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됨.
- 농민과 농업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수!

나. 도시농업 등을 통한 사전 농업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평생을 사무직으로 지낸 도시인들에게 단 10평의 토지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운 대상임.
- 은퇴전후로 작은 규모의 도시근방 텃밭 또는 옥상 등의 텃밭을 이용한 농업 경험을 통하여 체력 향상과 농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유도.

다. 최소 1년 이상의 전문 분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커리큘럼 마련

- 귀농귀촌 교육의 상당수가 2개월~4개월의 단기간 교육임.
- 농사는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짧은 교육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현지인의 주먹구구식의 불완전 정보습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4. 은퇴 전 제2의 인생에 대한 직업교육

가. 은퇴 전부터 적성검사 및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 선택

- 청년만 적성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자에게도 자신의 적성을 재검토할 정보를 주어야 함.
- 적성검사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몇 가지의 전문 분야 교육 선택의 기회가 필요.

나. 세무, 회계, 노동법, 부동산 등 실무 현장 교육

- 대부분의 직장생활은 회사업무 중 극히 일부분만 경험.
-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팔고 사는 일을 하려면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 회계등과 직원을 다루기 위한 노동법, 농지나 주택을 사고파는 부동산등의 실무 현장 교육이 필수.

다. 수익을 만드는 방법 교육

- 귀농, 귀촌 교육의 상당수가 실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함.

- 유통과정과 가격산정, 농산물 가치, 마케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을 교육 하여야 함.

## 5. 자신이 평생 쌓은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가. 자신이 가진 노하우, 경력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

- 자신이 평생 쌓은 경력과 노하우가 귀농 귀촌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
- 하지만 자신의 경력을 가르치고, 나눔으로서 현지인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 활용 방안 개발.

나. 자신의 능력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 각자의 능력을 배풀고, 나눈다는 관점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안 개발

## 5. 차후 연구 계획

가. 지속적인 연구

- 역귀성자 자료 수집 및 변화 방향 추적
- 귀농, 귀촌의 문제 자료 수집
- 귀농, 귀촌자에게 맞는 교육 및 정책방안 제안

나. 도시농업을 통한 역귀성자의 문제점 해결방안 연구

- 역귀성자의 상처입은 심신을 회복시킬 도시농업의 접근 방안 연구
- 각종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재산 및 인간관계 회복 연구

나. 도시인 은퇴자와 현지농민 교류를 통한 귀농, 귀촌 성공 방법 연구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성공적인 인생2막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의 귀농, 귀촌 실패를 줄이고, 다양한 도시농업의 분야를 통하여 역귀성 인구를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